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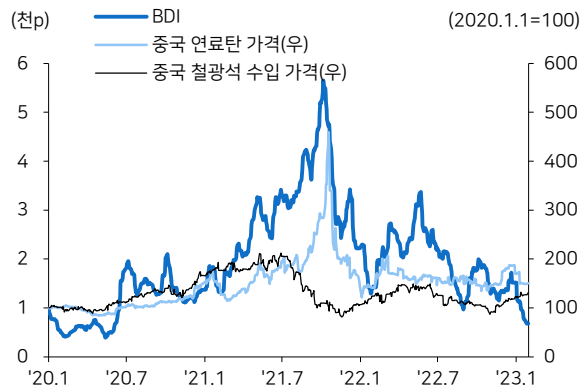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3. 1. 31 (화)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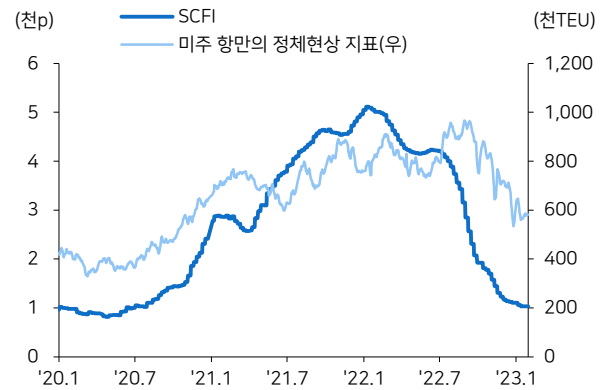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680.0p(+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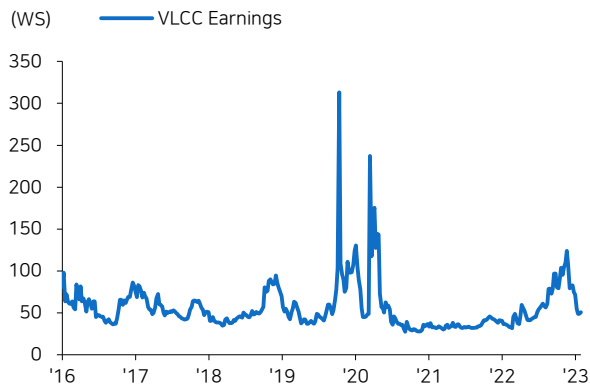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029.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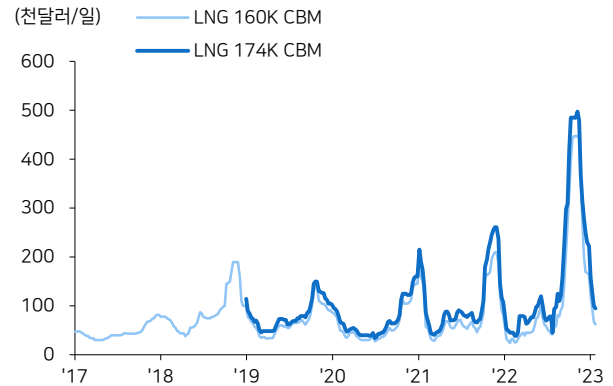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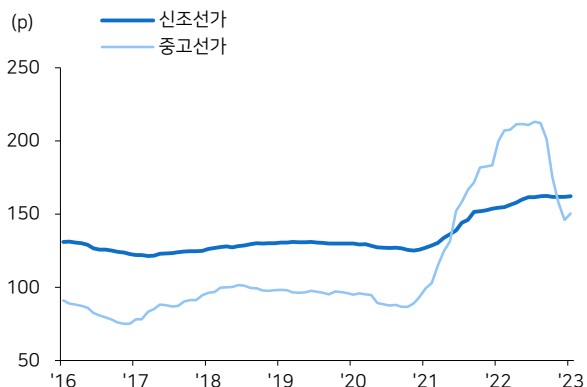
50.8p(+1.9p WoW)



LNG Spot 운임

62.5p(-5.0p WoW)  
94.8p(-5.3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2.7p(-0.0p WoW)  
150.3p(+0.0p WoW)

항공시장 지표

260.8p(+2.1p DoD)  
107.5p(+0.2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VIG파트너스, 이스타항공 1100억원에 인수 완료

VIG파트너스가 이스타항공 지분 100% 인수를 마쳤다고 보도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1,100억원 규모 신규 증자 자금을 투입했다고 언급됨. 이스타항공은 이번 투자 유치로 자본잠식을 해소했다고 알려짐. 이스타항공 새 대표이사에는 조중석 전 아시아나항공 전무가 선임됐다고 알려짐. (조선Biz)

## 中 석유·가스 수요 급증...올해 글로벌 에너지價 상승할 듯

IEA에 따르면 중국의 2022년 석유 및 가스 소비가 수십 년 만에 처음 감소했지만, 중국이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며 2023년 석유, 가스 수요가 급증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도됨. 2023년 겨울 날씨가 더 추워지고, 중국이 재개방하며 에너지 수요가 늘고,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서면 에너지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언급됨. (조선Biz)

## BRS Group says product price cap could mean falling Russian exports and LR strength

2월 5일 EU의 러시아산 정제유 수입 제재를 앞두고, BRS그룹은 최근 유럽이 약 25% 수입량을 확대하며 2분기까지는 디젤유 수급난은 없고, PC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됨. 가격상한제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그림자 선대'를 이용해야 하는데, PC선 그림자 선대 선복량이 현재 수요의 13.5%로 부족해 러시아 정제유 수출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알려짐. 가격상한제를 시행 중인 원유는 주요 선사는 러시아와 거래를 기피하며 10개건 중 9건은 그림자 선대로 수송되고 있다고 언급됨. (Tradewinds)

## BP sees rising near-term LNG trade but an uncertain outlook after 2030

BP는 2030년까지 LNG 수요는 크게 증가하지만 그 이후는 불명확하다고 전망한다고 보도됨. 중국, 인도 및 일부 아시아 국가 등 신흥국이 석탄에서 LNG로 전환하며 수요가 증가하지만, 선진국이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며 상쇄될 것으로 설명함. (Tradewinds)

## Germany Wants to Take Action to Curb Russian LNG Imports

독일 정부가 러시아산 LNG 수입량을 줄이려는 방침이라고 보도됨. 독일 에너지부는 정부는 러시아산 LNG 구매를 지지하지 않으며, 기업들에 최대한 러시아산 LNG를 구매를 지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언급됨. 러시아의 유럽향 파이프라인 가스 수출량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감한 바 있음. 이를 대체하기 위해 러시아 및 그 외 국가로부터 해상수입 물량이 증가한 상태임.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여전히 러시아산 LNG를 수입하고 있는데, 유럽 수입량의 6% 수준으로 알려짐. (Bloomberg)

## Indonesia sees record coal exports of more than 500 mln tonnes in 2023

인도네시아가 2023년 역대 최고 수준인 5억톤 이상의 석탄 수출을 예상한다고 보도됨. 인도네시아 에너지 및 광물부 장관은 2023년 6.95억톤을 생산하고, 5.18억톤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2022년에는 6.87억톤 생산, 4.94억톤을 수출한 바 있음. 수출제재, 기상악화 등 이슈에도 생산량은 연초 목표를 상회했다고 알려짐. Kpler에 따르면, 2022년 한국, 대만, 필리핀향 수출은 증가했으나 중국향 수출만 감소했다고 언급됨. (Reuters)